

핏빛 자매 '장화, 홍련' vs 초록빛 공포 'M'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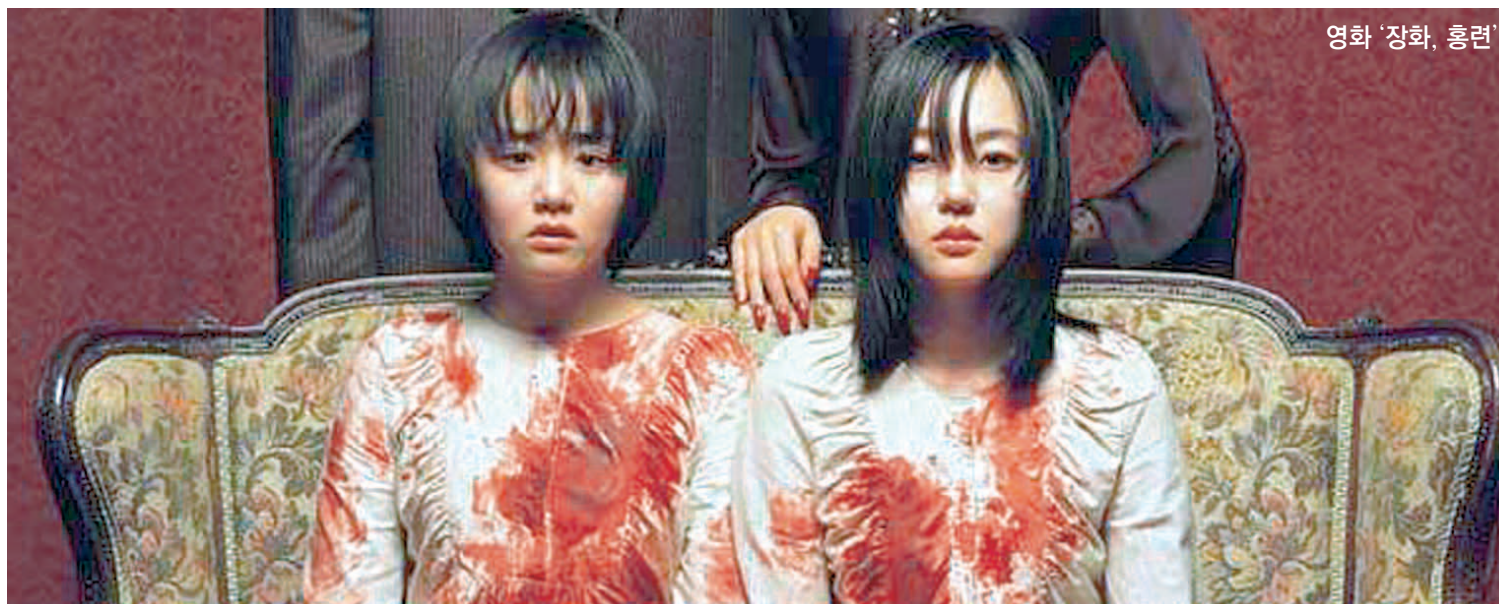
(드라마)

역대 공포영화 흥행 베스트5

(흥행 순)

1

● **'장화, 홍련'** (2003년·314만 명·배급사 집계)
16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 퇴색은커녕 오히려 높아만 가는 명성의 한국 공포영화 대표작이다. 고전 '장화홍련전'을 각색, 탁월한 영상미와 음악으로 재구성한 기획 및 김지운 감독의 연출이 돋보인다. 서울에서 오랜 요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자매를 반갑게 맞이하는 새엄마. 하지만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새엄마와 자매의 관계가 악화할수록 자매는 환영과 악몽에 시달린다. 자매 역의 임수정과 문근영, 새엄마 염정아의 연기 대결이 압권. 단, 혼자 보는 건 '비추'. 불편에 시달릴 수 있다.



영화 '장화, 홍련'

2



● **'곤지암'** (2018년·267만 명·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유튜브 시대'와 함께 10여년 동안 침체를 겪은 한국 공포영화의 부활을 알린 작품이다. CNN 선정 '세계 7대 미스터리 장소'로 꼽힌 곤지암 정신병원을 모티브 삼아 그 현장을 찾아 나선 주인공들이 겪는 기이하면서도 섬뜩한 일을 담았다. 배우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1인칭' 기법을 통해 관객이 흡사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효과를 낸다. '기담'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까지 공포 장르를 파고든 정범식 감독의 노하우가 집약됐다. '곤지암'의 인기 속에 부산 영도의 옛 해사구가 몸살을 앓기도 했다.

3



● **'폰'** (2002년·220만 명·배급사 집계)
하지원이 한때 왜 '호러 퀸'으로 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잡지사 기자인 지원(하지원)은 계속되는 괴전화를 피해 번호를 바꾸려 하지만 어쩔된 일인지 '011-9998-6644'라는 번호 외에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후로도 괴전화는 계속되고, 지원은 앞서 이 번호를 쓴 한 명은 죽고 또 다른 한 명은 실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폴더 폰' 시대의 공포영화. 아날로그 정서가 질지만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나 둘 드러나는 사건이 자아내는 공포감은 지금 봐도 탁월하다. 안병기 감독이 연출했다.

4



● **'여고괴담'** (1998년·200만 명·배급사 집계)
공포영화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박기형 감독 연출로, 한국 공포영화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한 여고 안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 이에 얽힌 사건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은영(이미연)은 졸업한 지 10년 만에 모교 교사로 부임하고, 그때부터 학교에선 누군가 죽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은영은 10년 전 학교에서 죽은 친구 진주(최강희)를 떠올린다. '여고' '자살' '질투' 등 공포영화 주요 관객인 10대의 취향을 저격, 이후 시리즈가 5편까지 나왔다. 현재 김서형 주연 '여고괴담' 리부트 시리즈 '모교'가 제작되고 있다.

5



●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2003년·178만 명·배급사 집계)
'여고괴담'이 한국 대표 공포 시리즈로 공고히 자리를 굳히게 한 두 번째 영화이자, 시리즈로는 세 번째 작품. 학교 기숙사로 오르는 숲길에 층계로 된 계단이 있다. 여우계단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29번째 계단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 저마다 간절함을 품고 소원을 비는 여고생들이 둘러싼 이야기가 흥미롭다. '여고괴담'이 신인 발굴의 산실이란 걸 다시 증명했다. 송지효, 박한별, 조안이 주연을 맡았다. 윤재연 감독이 연출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여름=공포' 공식이 사라진 이유



여름 납량특집이 사라진 안방극장에서 로맨스와 공포 장르를 버무려 인기를 모으는 tvN '호텔델루나'의 한 장면. 사진출처 | tvN 방송협력

극장가 '여름 성수기' 옛말 안방엔 현대적 공포물 인기

8월 개봉 공포영화 '변신' 한판뿐

더 이상 '여름=공포물'의 등식은 없다. 여름시즌, 시청자와 관객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며 무더위를 식혀준 전통적인 공포물이 이제 색다른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성동일, 배성우 주연 공포스릴러 영화 '변신'이 21일 개봉하지만 사실 최근 여름시즌 극장가에서 한국 공포영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여름 극장가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통하면서 100~20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쏟아 부은 대작들의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개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제작되는 공포영화들은 실험성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대신 봄이나 가을 등을 노린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지난해 3월28일 개봉한 '곤지암'이다. 공포영화 주요 타깃인 1020세대 관객을 겨냥해 신학기에 개봉, 흥행했다.

'곤지암' 투자배급사 쇼박스 최근하 투자2팀장은 8일 "사전 모니터 시사에서 10대와 20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새 학기 이들의 입소문 확산을 노렸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보기 다소 부담스러운 장르 특성상 여럿이 함께 보는 분위기도 형성됐다"고도 말했다.

안방극장에서는 2010년 KBS 2TV '구미호:여우누이뿔' 이후 한동안 납량드라마가 종적을 감췄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전통 공포물에 시청자가 식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동안 장르물이 그 자리를 채운 뒤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적 요소와 결합한 현대적 공포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영 중인 tvN '호텔델루나'는 로맨스와 공포 장르가 결합된 형태로 주목 받고 있다. 작년 방송한 OCN '손 더 게스트'도 서양의 구미호식인 엑소시즘을 끌어 들여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안방극장 납량드라마 베스트5

(시청률 순)

1

● **MBC 'M'**(1994년·평균 시청률 38.6%·이하 날스코리아)
1990년대 '청순가련형'의 대명사였던 심은하의 '변신'은 아직도 충격적이다. 화가 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갑자기 초록색 눈으로 돌변한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기계음의 목소리는 더 소름끼친다. 낙태의 윤리성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제법 심오한 드라마였다. 방송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내 영혼이 아파오네~"로 시작하는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고 시청률은 52.2%까지 치솟았다. 방송 25년 만에 내년 리메이크된다.



MBC 드라마 'M'

2



● **KBS 2TV '전설의 고향'**(1996년·27.8%)
공포드라마의 '교본'과도 같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소재로 한 사극이다. 1977년 10월18일 '마니산 효녀' 편부터 무려 12년 동안 여름 안방극장에 '집 귀신'처럼 달라붙었다. 소재 고갈로 1989년 '외장녀' 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어른들도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본다 할 정도였지만, 점차 시대에 뒤떨어진 귀신 분장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1996년 새 단장했다. 한층 발전한 CG와 이야기로 더 탄탄해졌다.

3



● **MBC '거미'**(1995년·24.6%)
1990년대 중반은 그야말로 공포 특집드라마의 전성시대였다. 'M'으로 재미를 토크해 본 MBC가 이듬해 납량드라마 2탄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절지동물인 독거미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연기자 이승연이 주연을 맡았다.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 독거미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죽이는 모습이 당시에 꽤나 충격적이었다. 영화 '아라크네의 비밀' 등 여러 영화의 설정과 전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4



● **KBS 2TV '전설의 고향 1998'**(23.2%)
한 맺힌 여우의 울음소리가 안방극장에 울리면 '전설의 고향'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다. 인적 드문 산길에 푸른 안개가 깔리면 새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공중제비를 돌며 '휘리릭' 나타나는 모습은 절대 빠지지 않는 명장면이다. '묘곡성' '살생부' '여우골' '씨발이' '저승에서 핀 꽃' 등 12회에 걸쳐 원귀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줬다. 10년 만인 2008년 '구미호'와 함께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 시청자들을 찾았다.

5



● **SBS '고스트'**(1999년·22.2%)
세기말 귀신을 잡는 영웅 이야기를 신세대 감각으로 그려냈다. 본격적인 퇴마 드라마라는 점에서 제작진과 캐스팅도 화려했다. '백야3.98' '태왕사신기' 등을 연출한 고 김중학 PD와 '제빵왕 김탁구' '가족끼리 왜 이래' 등 집필한 흥행 작가 강은경의 초기 드라마다. 톱스타 장동건, 김민중, 김상중, 명세빈 등이 악역과 싸우는 내용으로, 당시 세기말적 분위기에 따라 PC통신, 게임, 채팅 등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